

4. 수도의 풍수해에 관하여

강 양 순 (영남작물시험장)

수도의 풍수해는 장마기와 태풍 내습시 강풍과 다우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복, 침관수 등의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수발아와 병해충 등을 유발시키는 피해, 또는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으로 엽신파열, 백수유발, 변색립, 탈립 등 피해, 그리고 해안지에서의 염풍에 의한 조풍해 등으로 그 피해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풍수해를 유발시키는 태풍, 폭풍, 폭풍우, 호우등 기상환경이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도 이후로 매년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침수와 백수발생 면적만도 '79년 태풍 "어빙호"시에 총 답면적의 15.6%, '86년 태풍 "vera호"시에는 8.3%에 달하여 침관수피해면적은 매년 평균적으로 5.4%를 점하는 주요한 기상 재해가 되고있다.

지역적 입지조건으로 보아 침관수피해는 하구언 및 각종 Dam유역에서 호우로 그 피해가 영호남지역에서 심한편이지만 극지적인 집중호우는 전국적이고 또한 풍해는 태풍진로권(주로 태풍 1형과 태풍 2형)에 있는 영남,영동권의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지역에서 그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침관수피해 연구는 1935년 일본인 나카지마가 낙동강 일대의 침수환경 및 작물별 침수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의 여지가 큼을 제시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수피해 경감을 위한 재배법이 많이 개선되었고 통일형품종 육성에 의한 관수저항성이 일본형 품종보다 훨씬 강한 특성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인도형 FR13A품종은 통일형 품종보다 월등한 관수저항성을 갖고있고 IRRI에서는 관수저항성 검정법 확립 및 많은 저항성 계통이 육성되고있다.

그리고 풍해에 관한 연구로는 상습적으로 풍해를 받고있는 일본에서 주로 풍해 해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영남작물시험장 영덕출장소와 경북 농촌진흥원에서 저항성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영덕벼는 추정벼와 상풍벼보다 풍해 저항성이 현저히 높고 또 P.E망에 의한 방풍효과도 크게 높였다.

이상으로 풍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상환경은 발생예측이나 그것의 인위조절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기상정보의 탐색과 이용이 뒤따라야 하겠고, 또 금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및 직파재배하에서는 도복 및 수발아등 풍수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미질개선과 아울러 이에 대한 획기적인 경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